

아동의 교류양상에 대한 분석 : 집단주의 · 개인주의 이론의 적용¹⁾

한규석* · 오점조**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집단/개인주의 이론의 틀을 적용시켜 아동들의 교류양상을 분석하는 한편, 그 이론에서 도출된 두레/홀로 성향이론을 검증하였다. 아동을 두레 성향자와 홀로 성향자로 구분하여 각기 52명씩을 대상으로 다양한 친구들과의 만남을 조사하였다. 두레 성향자들이 홀로 성향자보다 상대가 내집단, 외집단이나에 따라 자기노출, 만남의 분위기 지각이 크게 다른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했다. 그러나, 두레/홀로 성향자들 간의 차이는 교류양상의 제 변수들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개인주의 이론의 정치화를 위해서는 물론 사회적 행위의 설명이론으로써 두레/홀로 성향이론의 개발 및 검증이 갖는 가치가 논의되었다.

집단/개인주의 구분틀이 지니는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연구가설을 개발시켜 과학적인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은 70년대까지만 해도 드물었다(Doob, 1980). 심리학계에서는 최근에 Triandis (1989, 1990)에 의해서 집단/개인주의 이론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다. 그에 의하면 “집단주의의 주된 특징은 자아를 집단의 일부로써 파악하고, 집단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에 선행시키며, 집단의 원활한 결속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집단에 강한 정서적 애착을 갖는 것이다. 한편 개인주의의 주요 특징은 자아를 집단과는 별개의 독특한 단위로써 지각하고, 개인의 목표추구가 집단에 누를 끼치더라도 개인의 목표를 강조하며, 집단의 결속에 관심이 적고 정서적으로도 거리감을 갖고 있다.”(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p.335) 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설들이 설정되고 이를 검증하는

노력이 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심리학 분야의 여러 연구들은 대인교류의 양상, 조직의 특성, 의사소통의 특성, 사고의 형태, 분배양식, 갈등의 진행 및 해소, ‘나’의 규정양식 등에 있어서 문화권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집단/개인주의 구분이 유용함을 보여주고 있다(한규석, 1991; Markus & Kitayama, 1991). 이 이론은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의 분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동안 제시된 여러가지의 이론들(mid-range theories)을 통합시키는 연결고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이론들이 보여주고 있는 대립, 모순을 포용할 수 있는 큰 이론(a grand theory)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도 그 이론이 가진 포괄성 자체가 중요한 비판의 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교문화심리학회장을 역임한 Kagitcibasi(1990)는 집단/개인주의 이론의 발전 및 연구양상에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가지 경고를 하였다. 그것은 이 이론이 문화비교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화차이의 대부분을 설명하는데 너무

1) 자료의 통계처리를 도맡아 해준 전남대학교 대학원 마지현 양에게 감사드린다.

쉽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문화라는 개념은 너무 애매하여 독립변인으로써는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Segal, 1979). 그 이유는, 서로 상이한 두 문화는 실로 다양한 면모에 있어서 상이하며 집단/개인주의의 차원상의 차이는 그들중의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두 문화권의 성원들이 보이는 행동과 생각의 차이를 두 문화가 갖는 집단주의(혹은 개인주의) 성향에 있어서의 차이로 보기만은 어려운 것이다. 이같은 지적은 적절한 것으로 집단/개인주의 이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자체가 바로 그 이론의 취약한 부분일 수 있다는 모순을 들추어 낸 것이다. 집단/개인주의 이론의 연구를 활성화시킨 Hofstede(1992)도 최근에 집단/개인주의 차원이 남성/여성가치(Masculinity/Femininity) 차원과 별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자를 포용하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킴을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은 집단/개인주의 이론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다루는 검증연구가 보다 정밀화된 방법을 쓰므로써 그 이론의 한계를 과학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집단/개인주의 이론의 손쉬운 적용이 갖는 또 다른 문제점은 전통사회가 近代化 되면서 근대의 사회는 어느 것이건 순수히 개인주의적이라거나 또는 순수히 집단주의적이라고 볼 수 없게 된 점이다. 즉 순수한 의미에서 집단 혹은 개인주의적인 문화의 속성만을 지니고 있는 문화권은 없으며, 대부분의 문화권이 양면성을 나름대로 지니고 있다. 이는 특정한 문화권을 집단주의 문화나 개인주의 문화나 하는 획일적인 분류 및 가정(assumption)이 왕왕 잘못될 수 있음을 뜻한다. 비록 여러 연구가 그 이론으로 적절히 설명되는 문화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이론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들이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Frager, 1970; Hui & Villareal, 1989; Leung & Iwawaki, 1988; Triandis et al., 1988). 이러한 연구들은 예외없이 「동양-집단주의, 서구-개인주의」의 도식을 받아들여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을 소속 문화에 따라 일괄 처리하였고, 이론과 부합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추후적인(post hoc) 설명으로써, 문화권 내의 사람들이 집단주의(또는 개인주의) 성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들고 이의 측정을 권하고 있다. 기실 Leung과 Iwawaki(1988)는 그들의 연구에 참여한 일본과 미국 대학생들에게서 집단주의 성향의 점수가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보인바 있어, 문화별 일괄처리가 갖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한국사회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에 있어서 세대간, 교육년령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Han & Ahn, 1990). 이같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집단/개인주의의 이론검증에서 국가를 독립변인으로 삼는 것이 능수가 아님을 의미한다. 철저한 이론의 검증을 위해서는 문화권내에서 상응하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집단/개인주의 이론의 문화권내 적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적용연구가 그 이론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그 이론의 틀을 적용시켜 한국 문화권에서 아동의 교류양상을 분석코자 하였다. 집단/개인주의 이론은 사람들의 교류양상에 관하여 여러가지 흥미있는 가설과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집단주의자들은 제한된 범위의 내집단 성원들과 교류를 주로 가지며 개인주의자들은 내/외집단의 구분 없이 폭넓은 교류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Triandis 등(1988)은 집단주의 문화권의 개인들은 친구를 만드는 사교술이 미숙하지만 그 친구 관계란 많은 부담을 서로 지게되는 長期的이며 심도 깊은 友情이며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권의 개인들은 친구를 만드는 사교술은 뛰어나지만 그 친구들은 의무부담을 별로 수반하지 않는 친밀성이 부족한 短期的인 관계로 특징지워진다고 주장하였다. Wheeler 등(1989)은 이같은 문화의 차이를 전제하고 홍콩인들의 교류는 주로 내집단 성원과의 교류이므로 이들이 적은 수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러한 교류의 상당수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함께 이루어지며, 교류에서의 친밀감과 자기노출의 정도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Wheeler 등(1989)은 미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에게 약 보름간에 걸쳐서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10분 이상의 대인 교류에 대해서 그 대상, 교류시간, 교류내용, 교류횟수 등에 대한 기록을 하였다. 집단주의 문화권인 홍콩의 학생들은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의 학생보다 일일 교류횟수 및 대상자의 수가 적었으나, 매 교류 지속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홍콩의 학생들은 交流內容이 과제 중심적이고(오락, 즐거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자기노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Wheeler 등의 연구결과는 문화차이에 대한 집단/개인주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 홍콩과 미국 대학생들이 갖는 10분 이상의 만

남을 비교하면서 홍콩 대학생들이 갖는 10분 이상의 만남은 모두 내집단과의 만남인 것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들의 조사지는 교류 상대방과의 친밀성(intimacy)을 파악하는 문항이 있었지만 이 자료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문화권에서건 교류는 내외 집단을 망라하여 다양한 성원을 대상으로 이루어므로 집단/개인주의 이론을 적절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문화권내에서 교류의 상대방을 내집단, 외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가 내집단이나 외집단이나에 따라서 교류양상, 대인지각, 의사소통, 갈등조정 등의 방법과 사회규범의 적용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바 있다(Tajfel, 1978). 특히 이같은 내/외집단의 구분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Gudykunst 등(in press, Wheeler, Reis, & Bond, 1989에서 재인용)은 홍콩과 대만의 학생들은 외집단 성원에게 보다는 내집단 성원에게 더욱 자기노출을 많이 하는 반면 미국과 호주의 학생들은 내/외집단 간의 차이를 두지 않음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중국인이 호주와 미국인에 비해서 내집단 성원에 대한 노출이 많음을 보였다. 다른 연구에서 Gudykunst, Yoon, & Nishida(1987)은 한국, 일본, 미국의 대학생들이 낯선(외집단)과 같은 반 친구(내집단)를 대상으로 보이는 의사소통의 특징을 조사 비교하였다. 한국과 일본에서 내집단과의 교류는 매우 친밀하고(personalized), 순조롭게(synchronized) 진행되는 경향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Leung(1988)은 미국과 홍콩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대가 낯선이나 아니냐 하는 구분이 미국인에게서는 갈등의 해결방법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홍콩인들에게서는 큼을 보였다. 다른 연구(Leung & Bond, 1984)는 자기가 기여를 많이 한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상대방이 친구이건 낯선이 이건 구별없이 자기 몫을 약간만 더 취하는데 반해 중국인들은 친구의 경우보다 낯선이를 상대로 훨씬 많이 자기 몫을 취하는 것을 보고했다(실험 2). Triandis(1989)는 가상적인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의 유사성으로 판단할 때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좁은 의미의 집단(가족)과 넓은 의미의 외집단이 구분되며,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긴밀한 내집단(가족), 내집단, 외집단의 셋으로 구

분이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연구 결과들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내/외집단의 구분이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침을 보이고 있다.

원래 집단/개인주의 이론은 문화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제시되었으나 Triandis 등(1988)은 문화권내에 이를 적용시켜 볼 수 있음을 주장하며 문화권내에 적용시 집단주의자(collectivists)를 두레성향자(allocentrics), 개인주의자(individualists)를 홀로성향자(ideocentrics)로 이름지어 用語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최근에 한규석(Han, 1992)은 이동을 두레-홀로성향자로 구분시켜 이들에게 假想的인 分配狀況을 제시하여 두 성향집단이 독특한 행위,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즉 두레성향자들은 마치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인것 처럼 행동하고 홀로성향자는 마치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인것 처럼 행동함을 보여 문화 차이 이론이 문화권 내에서 적용, 검토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본 연구는 이같은 연구의 연장 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相對方이 內集團 成員이나, 外集團 성원이나에 따라 보이는 교류양상의 차이는 두레성향 아동에게서 홀로성향 아동에게서 보다 더 클 것이다. 이 가설을 교류양상을 파악하는 제 변수로 검토하고자 한다.

방 법

응답자

광주 시내 2개 국민학교에서 6학년생 312명을 대상으로 두레-홀로성향 척도(Han, 1992)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상위 약 20%에 해당된 남녀 30명씩(남, 여 공히 척도 점수는 10-13점)을 두레성향자로, 하위 약 20%에 해당된 남녀 30명씩(남, 여 공히 척도 점수는 1-8점)을 홀로성향자로 보아 총 120명을 선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타인과의 교류양상을 파악하였다. 이 들중 불성실한 기록자가 나와 이들을 제외하고 성향집단별 남녀를 同數로 맞추어 두레성향 남녀 각 26명, 홀로성향 남녀 각 26명의 총 104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조사도구 및 조사절차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서, 본 조사에 앞서 Y국교 6학년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

시하여 응답지의 내용을 조정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2개교 각 교실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여러날 동안 기록한 조사는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었다. 조사시에는 아동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간단히 알리고 이 연구가 연구 외의 다른 목적에는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아동들의 진실한 응답이 가장 중요함을 누누히 강조하였고 응답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하였다.

兒童用 두레/홀로성향 척도: 이는 기존의 집단/개인주의 척도(Hui, 1988; Triandis, McCusker, & Hui, 1990)를 참조하여 아동들을 대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한규석(Han, 1992)이 제작한 것이다(부록 1 참조). 이 척도의 항목들은 모두 15개이며 Hui와 Triandis(1986)가 주장한 집단주의자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구성하였다. 즉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지, 물질·정신적 자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 하는지, 주위의 의견에 동조하는지, 타인과 경쟁의식이 약한지, 일의 성패에 대해 타인과 책임을 공유하려고 하는지, 내집단 성원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물어 그러한 경향이 강할수록 두레성향이 큰것으로 채점하였다. 아동들은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을 잘 묘사하는 지에 따라 「예-아니오」로 응답하였다. 이 척도는 연구자가 방문한 당일에 학급 별로 집단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두레성향자의 척도점수 평균은 11.35(sd=.79), 홀로성향자의 평균은 5.98(sd=1.57)로 나타났다. 남녀의 성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이전 연구(Han, 1992)에서 .6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alpha = .72$ 로 나타났다.

대인 교류양상 분석을 위한 조사지: 아동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교류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Wheeler 등(1989)이 제작 사용했던 Rochester Interaction Record(이하 RIR)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아동 수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몇개의 문항을 첨가하여 총 16문항으로 만들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교류의 친밀성, 교류 지속시간, 만난 친구의 수, 만남이의 성별, 교류시간, 만남의 목적, 만난 사람과의 관계, 만남의 분위기, 만남의 주도성, 만남의 동기, 자기노출 정도 등이다. RIR은 아동들이 10분 이상 다른 아동과 만났을 경우 그 만남이 끝나는 즉시 회상을 하면서 한장의 기록지를 작성토록 하였다. 이

RIR은 아동들이 작성요령을 익힌 후에, 10장 썩을 배부하였다. 아동들은 약 열흘간에 걸쳐서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상대 및 화제에 따른 대인노출 조사지: 이는 대인노출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Jourard & Lasakow (1958)가 최초로 사용한 것을 Barnlund(1975)가 국가비교에 사용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오세철(1982)이 사용한 바 있다. 이들이 사용한 것을 참조로 우리 아동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조정하였다(이하 Barnlund 방식). 노출의 상대자를 어머니, 아버지, 손위형제(사촌포함), 손아래형제(사촌포함), 동생친구, 이성친구, 같은반 아이, 낯선 아이의 8명으로 구분하였다.

8명의 각기 다른 상대자에게 다음 16개의 화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노출하는 정도를 3점척(거의 안함-탁 터놓음)을 사용하여 표시하게 하였다: 종교 문제, 취미 및 특기, 장래 소망, 집안 형편, 내 성격, 내가 가진 흥, 학교 성적, 상대방이 잘못된 일, TV 및 연예인, 다른 친구 이야기, 음식, 용돈, 독서, 나의 고민, 성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 내가 저지른 잘못 등이다. 이 척도 점수는 연구자가 설문한 당일에 학급 별로 집단적으로 얻어졌다.

이상 세가지의 조사지에 더하여 친한 친구의 수 및 그들과의 만남의 빈도를 파악하고자 친한 친구들의 이름, 性을 기록하고 그들과 만나는 빈도를 5점척(드문드문-1~2일에 한번)을 사용해서 표기하게 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주가설은 상대방이 내집단 성원이나, 외집단 성원이냐에 따라 보이는 교류양상의 차이가 홀로성향자보다는 두레성향자에게서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가설은 성향변수와 상대자(내/외집단) 변수가 상호작용 효과를 가진다는 相互作用 假設이라 할 수 있다. 이 상호작용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의 일부를 갖고 분석한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전체자료를 갖고 성향집단간 차이와 性差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겠다.

RIR 방식을 통한 교류양상 분석(상호작용 가설분석)

10분 이상동안 만나는 다른 아동들과의 교류는 「친한

<표 1> 성향 집단별 각 교류의 대상과 만난 횟수

성향	N	친한친구	그냥친구	그냥 아는아이	잘 모르 는아이
두레성향	52	288/55.7	188/36.4	34/ 6.5	7/1.4
홀로성향	52	254/48.9	201/38.7	55/10.6	9/1.7
계	542	389	89	16	

주: 빈도/(각 성향자가 보고한 만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친구, 그냥 친구, 그냥 아는 아이, 잘 모르는 아이」중 누구와의 교류인지를 표기하게 하였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평균 10개의 만남에 대해서 RIR기록지를 작성하였으며 모두 1036개의 만남이 보고 되었다. 범주별 교류 빈도를 성향별로 구분한 것이 표 1에 나와 있다 성향집단에 관계없이 보고된 10개의 만남중 약 5개의 교류는 친한 친구와의 만남으로 나타났다.

이 4범주중 「그냥 친구」가 갖는 의미의 애매성으로 해서 이 자료를 분석에서 일단 제외시켰다. 따라서 친한 친구를 내집단으로, 그냥 아는 아이와 잘 모르는 아이를 외집단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두레성향자의 31명(60%)과 홀로 성향 아동의 21명(40%)이 외집단과의 교류를 안한것으로 나타나 이 분석에서만 잠정적으로 제외되었다. 이들중 남녀비율은 각 성향집단에서 거의 동수로 나타났다.

자기노출: RIR을 이용한 자기노출의 파악은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상대방과 만남에서 '자신이 얼마나 솔직하게 행동했는가'와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리낌없이 다 했는가'의 물음에 대해 5점 척상에 각 만남을 평가하게 한 것이다. 개인별로 보고된 여러 만남을 상대자에 따라 내/외집단으로 분류한 후 각 범주 별로 응답 변수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취하여 개인 점수로 취한 후 성향 집단별 평균을 구한 것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성향(집단간 변인)*상대방(집단 내 변인)의 2요인 변량분석을 한 결과 기대했던 상호작용 효과는 「거리낌」 변수에서만 나타났다($F_{1,50}=5.67$, $p<.02$). 평균치의 양상을 도해하면 그림 1과 같다.

비슷한 양상이 솔직성의 변수에서도 나타났으나 상호작용의 크기는 통계적 의미 수준에 훨씬 못 미쳤다($p<.$

<표 2> 두레/홀로 성향자별 교류양상의 몇 가지 특성 비교

내집단	두레성향자(N=21)		홀로성향자(N=31)	
	외집단	내집단	외집단	내집단
거리낌없음	3.80	3.09	3.47	3.33
	.77	.89	.85	.99
솔직하게	3.89	3.19	3.80	3.39
행동함	.74	.78	.70	.78
감정상한일	2.26	2.98	2.78	2.72
	.68	1.1	.73	.98
상대에게	2.25	2.36	2.55	2.79
언짢게함	.59	.85	.85	1.01
만남의	4.20	3.74	3.95	3.75
분위기	.49	.83	.50	.57
만남의	3.96	3.07	3.87	3.56
분위기	.50	1.05	.51	.64
친밀성	3.83	3.17	3.97	3.38
	.66	.86	.56	.78
교류기간	14.82	13.08	20.03	11.17
(개월)	16.4	17.1	14.7	10.9

주: 상단의 수는 평균이며 하단의 수는 표준편차임

거리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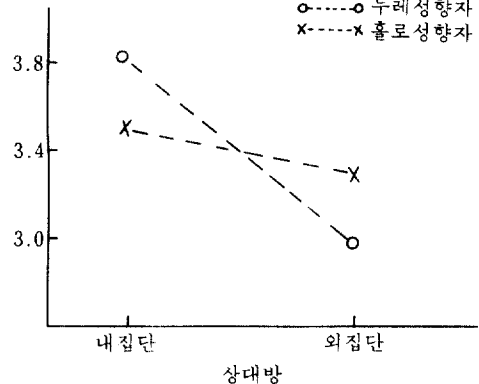


그림 1. 노출에 대한 성향*상대방 상호작용 효과분석

26). 이 양상을 보면 두레성향자는 홀로성향자보다 상대방을 잘 아느냐(내집단), 모르느냐(외집단)에 따라 노출의 정도가 크게 차이남을 보여 가설을 지지한다. 한편 상대가 내집단일 때 외집단인 경우보다 훨씬 솔직

히 행동했으며 ($F_{1,50}=19.61, p<.001$), 거리낌없이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F_{1,50}=12.77, p<.001$). 그러나 아동의 성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남에서 화를 냄: 만남에서 화기(和氣)를 해치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성향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상대에게 '언짢게 하거나 화를 낸 일'(없다-많다), '감정 상한 일'(없다-많다)을 평가하게 하였다. 응답치에 대해서 앞의 2요인 변량분석을 적용한 결과 예상했던 상호작용 효과가 '감정 상한 일'에서 나타났다 ($F_{1,50}=5.34, p<.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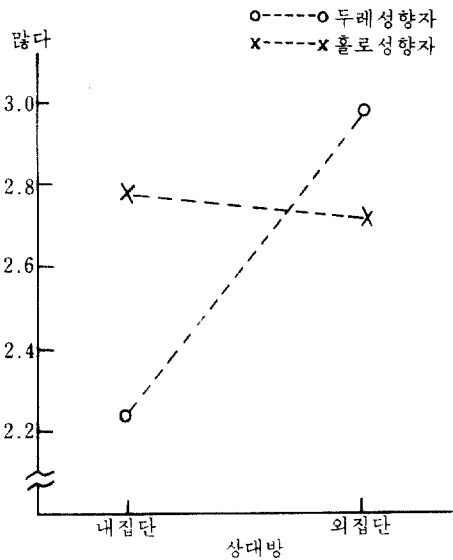


그림 2. 「감정상한 일」의 성향*상대방 상호작용 분석

이는 그림 2에서 보듯이 두려움성향자가 내집단과의 만남에서 감정상한 일이 훨씬 적음을 의미한다. 성향의 주 효과가 또한 의미수준에 근접하였다 ($F_{1,50}=3.72, p<.06$). 이는 두려움성향자가 호로성향자보다 상대방을 언짢게 한 일이 적음을 의미한다. 상대자 효과는 「감정 상한 일」에서만 약하게 나타났다 ($F_{1,50}=3.81, p<.06$). 이는 상대자가 외집단일 경우 내집단일 경우보다 감정 상한 일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2.83 대 2.57).

만남의 분위기 지각: 만남의 분위기를 주관적으로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위기」(불쾌했음-즐거웠음), 「만족도」(불만족-만족), 「친밀성」(서먹서먹했음-친밀했음)을 알아보았고 이 응답치에 앞의 성

향*상대자의 2요인 변량분석을 적용한 결과, 상호작용 효과가 만족도 지각에서 나타났다 ($F_{1,50}=5.41, p<.02$). 분위기 지각에서는 약하게 나타났다 ($F_{1,50}=1.93, p<.17$). 친밀성 지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면 상대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만남의 분위기 지각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차이가 호로성향자보다 두려움성향자에게서 훨씬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변수 모두에서 성향의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상대자의 주 효과는 강하게 나타났다 (모두 $p<.001$). 즉 상대가 친한 친구인 경우 만남이 즐거웠고 ($F_{1,50}=11.56$), 만족스러웠고 ($F=22.9$), 친밀했음 ($F=20.18$)으로 나타났다.

기타: 비록 통계적 유의수준에는 못미치지만, 만남의 시간과 사건 기간에 있어서 두려움성향자는 내외집단간에 차이가 미미하지만 호로성향자에게서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F_{1,50}=2.66, p<.11$). 이는 친밀도(즉 「친한 친구」라고 여겨지는 것)가 호로성향자들의 경우 사건 기간에 의해 크게 영향받지만 두려움성향자의 경우 사건 기간 이외의 것이 작용함을 시사하는 듯하다.

함께 만난 친구의 수에 있어서 성향집단별 차이는 없었으나 내집단과의 만남보다 외집단과의 만남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3.15명 대 3.64명, $F_{1,50}=4.44, p<.05$). 만남의 목적에 있어서 성향집단간 또는 상대자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향집단간 교류 양상의 차이

성향집단 및 성차가 미치는 교류 양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 대상자 104명 전체 자료에 대하여 RIR 응답치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만남의 목적: 만남의 목적을 「숙제, 심부름·일, 놀이 오락, 그냥보고싶어」 중에서 표기하게 한 것을 분석한 결과는 성향집단간 차이나 상대자(내/외집단)에 따른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주의자들의 만남이 과제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자들의 만남이 오락지향적이라는 가설(Triandis, 1990; Wheeler 등, 1989)이 동일 문화권안에서는 지지되지 못함을 뜻한다. 보고된 만남의 70~75%정도가 성향집단에 차이없이 「오락 및 그냥 보고싶어」 만남 것으로 나타났다. 性差가 나타났는데 이는 여아들이 남아보다 과제지향적 만남을 더 하는 것으로 지각함을 뜻한다.

친한 친구의 수 및 교류빈도: 친한 친구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들과의 만남의 빈도를 5점척상에 표기하게 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친한 동성친구의 수는 평균 4.9명($sd=.5$)으로 남여간, 성향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성친구의 수는 평균 2.7명($sd=2.4$)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친한 동성친구와의 접촉 빈도는 평균 4.12($sd=.85$)로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이성과의 접촉 빈도는 평균 3.59($sd=1.4$)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에서 성향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흥미있는 것은 여자친구의 수에 있어서 성향*성의 상호작용효과($F_{1,99}^{21}=5.84, p<.02$), 성향의 주효과($F=5.55, p<.02$), 성의 주효과($F=12.28, p<.001$)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여자친구의 수에 있어서 여아의 경우 성향집단의 차이가 없지만(공히 4.2명) 남아의 경우 두레성향이동이 홀로성향아동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을 의미한다(2.7명 대 4.0명). 한편, 이성친구들과의 만남 빈도에 있어서도 성향*성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F=5.30, p<.03$). 이는 홀로성향자의 경우 남녀차이가 없지만(4.0 대 3.8) 두레성향자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이성친구와 만남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2.7 대 4.0).

집단적 교류의 빈도: 각각의 만남에서 집단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만남에서 만난 친구의 수를 기록케 한 것을 분석하였다. Wheeler 등(1989)이 3인 이상의 동시 만남을 집단교류로 취급한 것에 따라서 내집단과의 교류에서 3인 이상의 만남이 차지하는 빈도를 성향집단간 비교한 결과 두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양집단 공히 50% 정도의 만남이 3인 이상과의 동시 만남으로 나타났다.

만남의 주도: 만남의 주도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분석에서 홀로성향자와 두레성향자의 응답에 있어서 변량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두레성향자의 변량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F_{21,31}=2.90, p<.01$). 이는 Wheeler 등의 분석에서 홍콩인들이 미국인보다 이성과의 교류에서 더욱 큰 변량을 보이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친한 친구」와의 교류양상: 친한 친구와의 교류자료만을 뽑아서 성향*성의 2요인 변량분석을 한 결과 성향집단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의 주효과를 해석하면 남아보다 여아가 솔직하게 행동하고(3.71 대 3.99, $F_{1,99}^{39}=4.99, p<.03$), 더 거리낌없이 이야기했다(3.34 대 3.72, $F=5.46, p<.02$). 그러나 남아가 더욱 만남을 주도 했으며(3.26 대 3.04, $F=5.63, p<.02$), 감정상한 일이 많았으며(2.64 대 2.26, $F=7.22, p<.01$), 언짢게 한 일이 많았다(2.56 대 2.05, $F=12.45, p<.001$).

「그냥 친구」와의 교류양상: 「그냥 친구」와의 교류자료만을 갖고 성향*성의 변량 분석을 한 결과 성향집단간의 차이는 안 나타났다. 여자보다 남자가 상대를 언짢게 한 일이 많았다(2.74 대 2.22, $F_{1,94}=12.36, p<.001$).

외집단과의 교류양상: 「그냥 아는 아이」와 「모르는 아이」와의 교류 자료만을 갖고 성향*성의 변량분석을 하였다. 「이야기 주도」에 있어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_{1,48}^{59}=8.63, p<.01$). 이는 외집단과의 만남에서 두레성향자들에서는 남자가 만남의 주도를 하고 홀로성향자들에서는 여자가 주로 함을 의미한다. 성향집단의 주효과는 만남의 만족도에서 나타났다. 홀로성향자가 두레성향자보다 만족도가 높음을 뜻한다(3.56 대 3.08, $F=4.22, p<.05$). 한편 남자가 여자보다 분위기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3.93 대 3.55, $F=4.25, p<.05$).

Barnlund 방식에 의한 자기노출 분석

이 방식은 16가지 화제에 대하여 8명의 상대자에 대하여 자기의견을 노출하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개인별 응답치를 화제별 구분없이 각 상대자별로 구한 후, 8 상대를 부모(아버지+어머니), 형제(손위+손아래 사

2) 이 분석은 원래 104명의 자료에 대해서 성향집단 * 성의 이요인 변량분석을 한 결과이나 여기에서 자유도가 58로 떨어진 것은 남자의 경우 여자친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두레성향자에게서 10명, 홀로성향자에게서 11명이 나와 이들이 분석에서 제외된 탓이다.

3) 이 분석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모든 아동 104명중 홀로성향자인 여자 한사람의 자료가 「친한 친구」와의 교류를 보고하지 않아 빠지게 되어 자유도가 99가 되었다.
4) 이 분석에서는 「그냥 친구」와의 만남을 보고하지 않은 아동 6명(두레성향자에서 남녀 각 1명씩, 홀로성향자중에서 남자 4명)의 자료가 제외되었다.
5) 이 분석에서는 「그냥아는 아이」와 「잘 모르는 아이」와의 만남을 보고하지 않은 아동 52명(두레성향자중 남 15명, 여 10명, 홀로성향자중 남 16명, 여 11명)이 제외되었다.

〈표 3〉 상대자별 자기노출(Barnlund식)

상대자	두레성향자	홀로성향자	전 체
부 모	2.22/.36	2.19/.40	2.20/.38
형 제	1.97/.35	1.83/.42	1.90/.39
친 구	2.01/.41	1.91/.34	1.96/.38
낯선이	1.63/.47	1.50/.47	1.56/.47

주 : 평균/표준편차

촌동), 친구(동성+반+이성), 그리고 낯선 아이로 재 분류한 다음 성향 집단별 평균을 구해 집단차이를 검증 하였다(표 3 참조). 양 집단간 차이는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통계적 유의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모든 대상에 대해서 두레성향자가 홀로성향자보다 자기노출을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16가지 화제를 묶기 위해서 화제별로 상대자에 관계 없이 평균을 구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주축요인분석을 하여 최초고유가가 1.0 이상인 요인 세개를 varimax 회전시켜 해석을 시도하였다(부록 2 참조). 세요인이 차지하는 최종설명변량은 총변량의 54.8%이었다. 요인 1은 「종교, 취미·특기, 장래소망, TV·연예인, 음식, 용돈, 독서」 등의 비교적 이야기가 용이한 화제(주제 I)들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집안형편, 내성격, 내홍, 학교성적, 내고민, 내잘못, 성교육」 등의 이야기를 꺼리는 화제(주제 II)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은 「상대과실」과 「다른 친구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주제 I과 II에 묶이는 항목 점수를 각 주제별로 합산하여 성향집단(2: 집단간 변인)*주제(2: 집단내 변인)의 2요인 변량분석을 하였다. 그결과 상호작용 효과($F_{1,102}=10.48, p<.01$)와 주제의 주효과($F_{1,102}=107.70, p<.001$)가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를 도작한 결과(그림 3) 주제 I에 대한 노출에서는 집단간 아무 차이가 없었으나 주제 II에 대해서는 홀로성향아동이 더 노출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홀로성향의 응답자가 두레성향의 응답자보다 이야기를 꺼리는 화제에 대하여 더 노출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 II에 대한 노출의 상대를 내집단(부모+형제+친구)/외집단(낯선이)을 구분하여 성향집단간 분석을 한 결과 상대자 효과($F_{1,102}=127.6, p<.001$), 성향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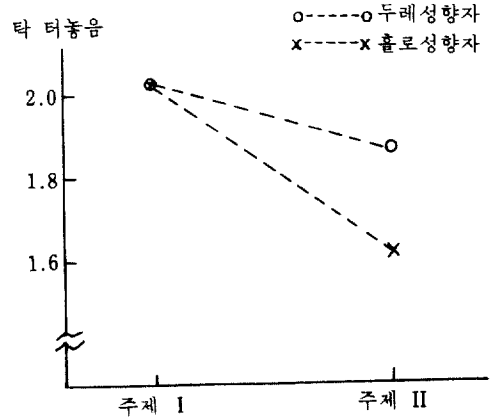


그림 3. 자기노출의 성향*주제 상호작용 분석

단효과($F_{1,102}=8.8, p<.01$)만 나타났을 뿐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두레성향자가 홀로성향자보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더욱 노출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1.74 대 1.53). 이 분석결과는 상대에 따라 노출이 성향집단간 차이가 있으리라는 相互作用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주제 II에 대한 노출에서는 성차가 없었으나 주제 I에 대한 노출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노출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6 대 2.14, $F_{1,100}=5.99, p<.02$). 이 경향은 상대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민학교 아동들을 개인적인 성향(두레-홀로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이들의 대인 교류 양상을 파악함과 아울러 집단/개인주의 이론의 문화권 내의 검증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비교문화 연구들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內집단 성원이나, 外집단 성원이나에 따라 보이는 교류 양상의 차이는 두레성향자(집단주의자)에게서 홀로성향자(개인주의자)에게 보다 더 크게 나타나리라는 相互作用 가설을 설정하였다.

아동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10개의 교류일화를 갖고 가설검증을 한 결과 자기노출, 만남에서 화를 냄, 만남의 분위기 지각 등의 분석에서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두레성향자들은 내집단과의 교류시 자기노출을 많이 하고, 만났을 때 화를 내는 일이 적고, 만남

에서 만족하는 경향이 외집단과의 교류시 보다 강한 반면 홀로 성향자들은 내외집단에 대한 구별이 두레성향자만큼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두레/홀로 성향 아동간의 교류양상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조사된 교류양상 변수(친한 친구의 수, 만남의 목적, 집단적 교류의 빈도 등등)의 거의 모든 것에서 성향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10$).

이같은 성향집단간 차이의 不在는 Wheeler 등(1989)의 연구결과와 대조를 이룬다. Triandis 등(1988)에 따르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내집단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강한 탓에 우정관계가 매우 밀착되고 오래 지속되는 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의 대부분이 그냥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구성되므로 이들과의 교류는 친밀도가 낮으며, 따라서 전반적인 관계의 밀도는 떨어질 것이다. RIR을 이용한 비교문화 연구에서 Wheeler 등은 홍콩의 대학생들이 미국인에 비해 소수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집단적인 교류를 많이 하고, 서로 노출을 많이 함을 보였다. Wheeler 등의 연구결과는 문화비교 차원의 것이고 본 연구결과는 동일 문화권에서 개인의 성향에 대한 비교이었다는 점에서 구체적 교류행위의 문화차이는 존재하나 동일 문화권에서 그러한 교류양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을 본 연구는 보여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집단/개인주의의 설명력은 상대방의 내/외집단 구분과 결부되어서 일관된 설명력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 相互作用 가설은 기존의 비교문화연구들의 검토에서 잘 지지되고 있지만 이 가설은 기존의 연구자들에게 항상 잘 인식되고 있던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이 가설이 문화권내에서도 잘 지지됨을 보였다.

물론 이같은 결론을 도출하게된 분석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즉, 교류 상대방을 내/외집단으로 구분함에 있어서 응답자가 판단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자료를 성향집단 요인과 상대자 요인으로 이원변량분석한 것은 이원 변량분석의 기본전제(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인 변수여야 함)를 무시한 것이다. 아울러 내/외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양 극단만(「그냥 친구」를 뺀)을 선정하다 보니까 두 성향 집단에서 불비례적으로 분석에서 제외된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것은 모두 본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촉구한다. 그러나 내집단으로 분류된 「친한 친구」와 외집단으로 분

류된 「그냥 아는 아이와 낯선 아이」는 모두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여겨져 성향 집단 변수와 독립적인 변수로 취급한 것이다. 상대방과 공동작업을 한 상황에서 보상을 분배하는 방식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Han, 1992)에서는 상대방의 내/외집단 변수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였다. 두레성향자는 내/외집단간의 구별을 홀로성향자보다 훨씬 크게하는 것이 나타났다. 이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본 분석이 갖고 있는 방법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류 상황을 파악했다는 의미를 본 연구는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노출을 두 가지 방법(Barnlund 식과 RIR식)으로 파악하였다. Barnlund(1975)는 일본과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친구, 이성친구, 부모, 낯선아이 등에 대해서 보이는 자기노출을 분석하여 동일 상대방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미국인이 일본인보다 훨씬 노출을 많이 함을 보였다. Barnlund의 研究 節次 一部를 그대로 한국의 대학생에게 적용한 연구(오세철, 1982, pp.159-202)에서도 韓國人의 자기노출이 日本人과 비슷한 水準이며 미국인보다 덜 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 보다 선택적으로 보다 적은 수의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自發的 形態보다 規制된 형태의 意思 疏通을 하고 自己露出을 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탓에 남에게 덜 알려지거나, 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 결과들은 집단주의자들이 내집단 성원에 대하여 자기노출이 많다는 Triandis의 가설과 어긋나며, Gudykunst 등(1987)이 보고한 의사소통의 문화비교 연구결과 및 Wheeler 등의 교류양상 분석결과와도 상치된다. 본연구에서 Barnlund식의 자기노출 파악에서는 이전 연구들이(Barnlund, 1975; 오세철, 1982) 시사하는 바와는 반대로 두레성향자들이 홀로성향자보다 自己露出이 더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특히 이야기를 꺼리는 화제에 있어서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외집단에 따른 차이나 성향집단과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IR방식으로 노출을 파악했을때 두레성향자들이 내/외집단을 구별하는 정도가 훨씬 심한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Barnlund식은 가상적인 상황에서 파악방법이고 RIR은 실제 벌어졌던 상황에서 즉각적인 회상을 통한 파악이라는 점에서 두 방법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결과로 판단할 때 Barnlund방식

은 RIR방식보다 노출의 파악도구로써 銳敏性이 떨어진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개인주의 이론에서 도출되어진 두레/홀로성향이라는 이론적 개념을 다루었다. 前者는 문화권들을 다루는 것이고 後者는 문화권내에서 성원들의 성향을 다루는 것이다. 두레/홀로성향 이론은 집단/개인주의 이론이 갖고 있는 포용성만큼이나 다양한 사회적 행위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Triandis, 1990를 참조할 것). 이를테면, 가치관(Schwartz & Bilsky, 1987), 내집단에 대한 태도, 對人 定向(interpersonal orientation: Swap & Rubin, 1983), 갈등대처 행위(Han, 1992) 등에 있어서 사회성원들의 행위를 구분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의 가치를 따지는 연구가 의미있을 것이며, 그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두레/홀로성향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간이척도로써 집단/개인주의의 세 측면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방향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riandis 등(1990)은 중국, 홍콩, 및 미국대학생들의 자료로 부터 문화권들을 구별시켜주는(집단-개인주의 次元上) 중요한 요인이 가족의 통합성(family integrity)이라는 집단주의의 한 속성이며, 문화권내에서 두레/홀로 성향자들을 구별시켜주는 요인은 自助心(self reliance)임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인들에 대하여만 두레/홀로 성향의 구분을 하였고 따라서 自助心이 중요한 판별변수로 나타났다. 문화권이 다르면 그 판별변수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이문선, 1992)는 두레성향자와는 달리 홀로성향의 중학생들이 상대방과의 공동작업에서 자신의 기여가 적은 경우에도 자기몫을 많이 취하는 경향이 강함을 실험연구를 통해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個人主義와 利己主義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Cho, 1990)와 맥을 같이 하며 우리사회에서는 홀로/두레성향자를 구별시키는 판별변 수가 利己心일 수 있다는 유추를 가능케 한다. 본 연구에서 홀로성향자들이 이야기를 꺼리는 주제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노출을 덜히는 것으로 나타난(Barnlund 방식) 것도 우리 사회에서의 홀로성향자들이 가진 특성일 수 있다. 한국 문화권에서 두 성향집단을 구별시키는 주된 요인이 무엇이며 문화권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는 것은 추후 흥미있는 연구과제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 오세철(1982). 한국인의 사회심리. 서울: 박영사.
- 한규석(1991).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0, 1-19.
- 이문선(1992). 분배상황에서 아동의 선호 양상: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적용.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rnlund(1975). *Public and private self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mmunication styles of two cultures*. Tokyo: The simul press.
- Doob, L.W. (1980). The inconclusive struggles of cross-cultural psycholog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1, 59-73.
- Cho, N.K. (1990). The emergence of individualism in Korean organiz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Frager, R. (1970). Conformity and anticonformity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203-210.
- Gudykunst, W., Ge, G., Schmidt, K., Nishida, T., Bond, M., Leung, K., Wang, G., & Barraclough, R. (in press). The influence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self-monitoring, and predicted outcome value on communication in ingroup and out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 Gudykunst, W., Yoon, Y.C., & Nishida, T. (1987). The influence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on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in ingroup and outgroup relationships. *Communication Monographs*, 54, 295-306.
- Han, G. (1992). *Children's choice in conflict: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Paper presented at the 11th Congress of Cross-Cultural Psychology, July, 14-18, University of Liege, Liege, Belgium.

- Han, S. Y., & Ahn, C. Y. (1990). Collectivism and its relationships to age, education, mode of marriage and living in Koreans. *Kor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1, 116-128.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Hofstede, G. (1992). *Masculinity/femininity as a twin dimension to individualism/collectivism*. Paper presented at the 11th International Congress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4-18 July, Liege, Belgium.
- Hui, C. H. (1988). Measuremen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Research on Personality*, 22, 17-36.
- Hui, C. H., & Triandis, H. C. (1986). Individualism-collectivism: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225-248.
- Hui, C. H., & Villareal, M. (1989).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psychological needs: Their relationship in two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 310-323.
- Jourard, S., & Lasakow, P. (1958). Some factors in self-disclosur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6, 91-98.
- Kagitcibasi, C. (1990). A Critical Appraisal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owards a New Formul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Leung, K. (1988). Some determinants of conflict avoidanc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 125-136.
- Leung, K., & Bond, M. H. (1984). The impact of cultural collectivism on reward allo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793-804.
- Leung, K., & Iwawaki, S. (1988). Cultural collectivism and distributive behavior.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 35-49.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Schwartz, S., & Bilsky, W. (1987). Toward a universal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550-562.
- Segall, M. (1979). *Cross-cultural psychology: Human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Monterey: Brooks/Cole.
- Swap, W., & Rubin, J. (1983).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208-219.
- Tajfel, H.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3, 506-520.
- Triandis, H. C. (1990).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in individualism-collectivis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Triandis, H., Bontempo, R., Villareal, M., Asai, M., & Lucca, M.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s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McCusker, C., & Hui, H. (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06-1020.
- Wheeler, L., Reis, H., & Bond, M. (1989). Collectivism-individualism in everyday social life: The middle kingdom and the melting po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9-86.

<부록 1> 두레/홀로성향 척도

1.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것 보다 혼자 노는 것이 더 좋다.
2. 친구가 내 책이나 장난감을 빌려 달라고 하면 잘 빌려준다.
3. 친구가 선행상을 받으면 나도 덩달아 좋아한다.
4. 나보다 잘하는 것이 없는 아이를 친구로 사귀고 싶지는 않다.
5.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친구가 하자고 조르면 따라서 한다.
6. 친구가 기분나빠 할까봐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때가 많다.
7. 친구를 대신해서 야단을 맞으면 억울하다.
8. 운동회에서 우리반이 이기도록 응원을 열심히 한다.
9. 내 운동화나 옷을 살때는 친구들과 비슷한 것을 산다.
10. 친구가 다른 아이에게 맞으면 몹시 분하다.
11. 친구들이 나를 따돌려도 크게 신경을 안쓴다.
12. 우리반이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을때는 나도 기분이 아주 좋다.
13. 나는 친구의 장난감이나 책같은 것을 자주 빌리는 편이다.
14. 공놀이를 하다 친구가 남의 유리창을 깰때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15. 공부를 하건 놀이를 하건 남보다 떨어지는 것은 매우 싫다.

주 : 응답은 「예, 아니오」로 하게 하였음

1, 4, 7, 11, 14, 15번 문항은 홀로성향 문항임.

<부록 2> 16가지 화제의 요인별 부하계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종 교	.72	.02	.21
취미·특기	.84	.24	.11
장래소망	.69	.33	.02
TV·연예인	.48	.08	.37
음 식	.62	.20	.32
용 돈	.59	.43	.11
독 서	.65	.43	.11
집안형편	.36	.57	.17
내 성 격	.46	.49	.37
내 흥	.17	.58	.50
학교성적	.22	.75	-.03
내 고 민	.23	.62	.25
성 교 육	.10	.60	.32
내 잘 못	.15	.50	.40
상대과실	.11	.22	.61
다른친구이야기	.21	.13	.75
최종고유가	6.25	1.31	.90
%	40.9%	8.2%	5.6%

주 : 요인부하계수는 varimax 회전결과임.

**An Analysis of Children's Social Interaction ;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Gyu-Seog Han* and Jeom-Jo Oh**

Department of Psychology* an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theory of allocentrism/ideocentrism, developed out of the theory of collectivism/individualism, was examined with regard to children's social interactions. Hypothesized was that the effect of interacting partner's membership (belonging either to ingroup or to outgroup) is much greater among allocentrics than among ideocentrics. 104 6th-grade children (half allocentrics and half ideocentrics) were participated in to provide 10 episodes of peer interaction. The hypothesis was supported by the measures on self-disclosure and interaction quality. The main effect of ideocentrism/allocentrism was minimal in almost all variables of interaction. The theory of ideocentrism/ allocentrism not only plays a significant role of verifying the theory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but also has the potential of becoming an important dispositional theory.